

1989년 정기총회 및 봄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4월 14일 가톨릭의대 강당에서 전국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조성훈 교수 사회로 1989년도 정기총회와 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인사에서 협회장 김대군 신부는 「우리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노사분규는 상대방을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와 수용하는 마음 가짐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 난국을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이념구현의 자구제로 삼으면서 하느님의 치유사업에 힘을 모아 국민개보험에 대처하여 교회병원의 사명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총회는 원목활동의 활성화와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위해 각 병원에 사목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허혈·허안·각막이식수술등 한 마음 한몸운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실천에 힘쓰기로 했다.

실천사항으로는 ·환자쾌유를 위한 의료진과 가족의 공동기도 ·인사의 생활화 ·예약질료실시 ·불우소의층에 대한 자선활동을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과도르 약품보내기사업도 지속하며, 지난해 체결된 한·일 가톨릭 의료기술협력약정에 따른 인력교류 사업으로 연수생 5명을 4월과 9월에 1개월~3개월씩 일본 성마리아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협회장 김대군 신부와 사무총장 조성훈 교수가 유임되고 부회장에 대전성모병원장 유봉운 신부와 대구파티마병원장 여귀남 수녀를 선출하고 10명의 이사병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총회에 앞서 「의료전달 체계가 병원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금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실시로 의료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

참석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사회부 지역의료과 이동모 과장은 「의료전달 체계는 각계 대표들의 모임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실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1,2,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한 정부측 시행안을 설명하고 지역간의 균형과 의료기관의 기능분담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명 단

- 협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김대군 신부
- 부회장
대전성모병원장..... 유봉운 신부
대구파티마병원장..... 여귀남 수녀
- 사무총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조성훈 교수
- 이 사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조규상 교수
가톨릭병원장..... 박병원 신부
메리놀 병원장 윤경철 신부
부산성분도병원장..... 하용달 신부
성마오로병원장..... 방용자 수녀
성가병원장..... 이완영 수녀
포항성모병원장..... 박희순 수녀
순천성가톨릭병원장..... 박금자 수녀
가톨릭피부과의원원장 엠파프라이싱거
보은성모의원원장..... 송윤희 수녀
- 감 사
성빈센트병원장..... 박성옥 수녀
성모자애병원장..... 박순일 수녀



1989년 정기총회

에콰도르 약품보내기 사업 및 의료진 파견

1986년 8월 멀리 남미에콰도르국 과야킬 대교구 빨마본당에서 본 협회회장 김대군 신부님께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본 협회와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약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1987년에 약1톤의 많은 의약품들을 수집하여 현지에 공수한 바 있다.

8년전 부터 에콰도르 사막지대에서 활동중인 우리나라 선교사들(최규업 신부와 한국수녀 3명등)에 의하면 다수의 빈궁한 주민들이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 결핵, 설사, 이질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가난과 무지 그리고 불결한 환경등으로 약조차 없어서 치료를 못해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약품지원을 호소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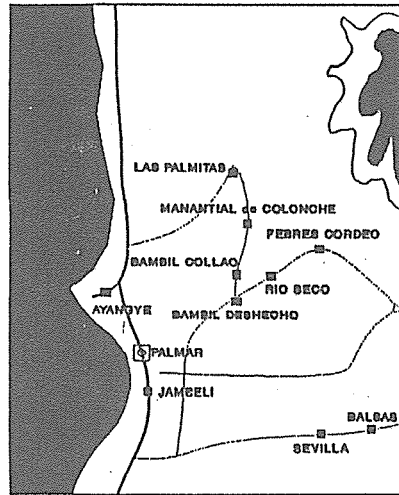
금년에도 의료지원사업을 재개하여 협회 산하 병·의원에서 보내온 약품과 성금으로 구입한 의료기재등을 7월에 공수하는 한편 현지주민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지난 8월 2일부터 28일까지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중호 신부님, 강남성모병원 박성학 교수등 4명의

의료진이 현지본당과 11개공소 마을을 순회하며 모두 1,045명의 주민환자를 진료하고 검사를 통한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와 구충활동도 실시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돌보고 있는 최규업 본당신부님, 김 베로니카 수녀, 유스콜라스띠까 수녀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1989년도 성금 및 약품 기증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의료진 순회진료 지역 약도

가톨릭병원협회 성금 및 약품 기증 내역 (1989년 6월~7월)

성금기증	금 액	약품기증	금 액
대구 가톨릭병원	1,000,000	강남 성모병원	2,000,000
성 분도병원	1,000,000	성모병원	2,000,000
성 바오로병원	1,000,000	대구 파티마병원	2,000,000
성 빈센트병원	1,000,000	성모자애병원	1,000,000
메리놀병원	1,000,000	의정부 성모병원	500,000
포항 성모병원	1,000,000	마산 파티마병원	500,000
부천 성가병원	1,000,000	성북 성가병원	300,000
대전 성모병원	1,000,000	가톨릭 피부과병원	100,000
순천 가톨릭병원	200,000	원주 가톨릭병원	100,000
당진 성모병원	200,000	중평 수녀의원	100,000
보은 성모병원	100,000		
이리 성모병원	100,000		
프란치스코의원	100,000		
성 라자로 마을	100,000		
합 계	8,800,000		8,600,000

제2회 한일의료기술협력 운영위원회 개최

본 협회와 일본 성마리아병원이 체결한 한일의료기술협력 약정에 의한 1989년도(제2차) 한일공동운영위원회가 지난 10월9일 양국 운영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측이 일본 성마리아병원에 파견한 5명의 연수생 연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1990년 인력교류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990년 인력교류사업 합의사항-

① 1990년도에 한국측에서 3월부터 10월 사이에 5명의 연수생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연수분야와 구체적 파견계획을 일본측에 통보한다.

② 1990년 9월 하순에서 11월 사이에 일본측이 간호교육을 위한 연수생 20명을 2주일간 한국가톨릭의료기관에 파견한다.

③ 일본측이 호스피스와 신장이식후의 간호처치 연수를 위하여 간호원 3-4명을 한국가톨릭의료기관에 파견하며 연수시기, 기간은 양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1990년 11월에 제3차 공동 운영위원회를 일본에서 개최한다.

1989년도 해외연수결과 보고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정에 의하여 본 협회가 일본 성마리아 병원에 파견한 1989년도 해외연수실적은 아래와 같다.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 보고서에 의하면 연수생 선발조건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본어 회화와 해득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연수후 소감에 대하여 최신 의료장비와 소모품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가 매우 능률적이며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매우 친절하게 해주어서 연수기간 중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연수를 마치고 성마리아병원장과 함께
가톨릭병원 조화복, 성미순 간호사

1989년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 실적

소 속	연 수 자	연수기간	비 고
메리놀병원	의용공학주임 이영근	4. 24~ 7. 23 (3개월)	연수필
가톨릭병명	감독간호사 조화복	4. 24~ 5. 23 (1개월)	연수필
	감독간호사 성미순	4. 24~ 5. 23 (1개월)	
성빈센트병원	감독간호사 안정순	9. 25~10. 24 (1개월)	연수필
	수간호사 김규양	9. 25~10. 24 (1개월)	

1989년 가을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포항공대에서 「교회병원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1989년 가을 세미나를 갖고 가톨릭병원으로서 생명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국 가톨릭의료기관에서 병원장 및 사목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의 「교회병원과 자연자족계획사업」, 가톨릭의대 김중호 신부의 「오늘의 생명윤리-무엇이 문제인가」, 강남성모병원 이진우 교수의 「불임과 복원수술」, 대구 가톨릭병원 황기석 교수의 「가톨릭에서 본 안락사」등 강연과 대전성모병원 김영애 자매와 성빈센트병원 이경자 자매의 「행가운」활동사례 발표 및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맹광호 교수는 「순결교육과 자연가족계획보급에 대해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함께 가정을 위협하는 각종 피임행위·인공유산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자체」라면서 「최근들어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중 복원수술을 원하는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황기석 교수는 「가톨릭교회는 안락사로 인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근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단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온갖 치료방법을 사용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치료거부 결정은 양심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규상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의에서 「생명윤리는 가톨릭의료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문제로서 의료기술속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생명을 말살하거나 조작하는데 참여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안락사와 죽음의 문제, 그 반대로 생명의 조작에 있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일의 분별이 오늘날 가톨릭의료의 앞장서서 다루어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원엔 환자의 치료와 재활

뿐 아니라 인간생명 옹호에도 앞장서야 하므로 가톨릭병원내에 윤리위원회 설립이 당면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2일간의 세미나를 마감하면서 협회장 김대군 신부께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간곡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 격려사(협회장 김대군 신부)

신부님, 수녀님들이 의료 사업을 하면서 요즘 노사문제, 여러가지 제도적 변화등으로 심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한 오는 연말에는 노사협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겪어야 할 흐름이므로 서로 해결책을 협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애로를 타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다가 혹시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중에는 병원 경영면에서 전문적 자질이나 바탕을 가진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병원 경영자가 우리들보다 앞서 있으므로 그들과 경쟁하면 처지게 되며 설사 보조를 맞춘다 해도 신분적 제한과 이념적 문제로 우리가 울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병원은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 사회나 교회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병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개인사업이나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병원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하며 병원 운영에서 생긴 것은 환자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는 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단 지원으로 병원을 시작하여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해왔고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이윤이 생기게 되니 다른 일에 눈을 돌린 일이 있지 않는지, 배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병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 나간다면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해 주실 것이므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의사와 직원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기본 방향이 뚜렷해지면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이 미움으로 대할때 같이 미움으로 적대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대응 자세를 바르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되는 바른자세에는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 수녀님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때문에 의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가톨릭병원이 고유 사명을 안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며 우리가 기본 방향과 자세를 바로 잡는다면 훨씬 쉽게 병원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협회, 의료원 모든 가톨릭병원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행가운 사업을 돕는 일, 가톨릭병원 의사에 대한 복원수술 연수교육등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무원장께서 말씀

하신 우리 협회의 활성화와 재정 지원 문제는 앞으로 한국 사회속에서 가톨릭병원 협회가 우리 의료계에 던져야 할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 이 문제를 연구 발전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료원이 임상의학 연구소 건물을 지으면서 그곳에 병원연구소를 설치하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병원협회에 병원연구소를 마련하게 된다면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념적, 윤리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경영적 측면까지도 같이 다루어가면서 한국의료 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미국 가톨릭병원협회를 방문하고 협회 활동을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일행 모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일을 위해 의견을 모아서 일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끝.